

野 “전대 이후가 더 걱정”... 후유증 클 듯

새정치 당권주자 文·朴 연일 난타전...갈등 폭발 직전

진보성향 국민모임 창당 준비위는 광주서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의 2·8 전당대회 이후 야권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권 경쟁 과정에서 갈등이 심각한 상황을 넘어 폭발 일보 직전이기에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가 중심이 된 비노 세력과 박지원 후보가 중심이 된 비노 세력이 정치적으로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전당대회가 아닌 '분당대회'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며 누가 당권을 잡더라도 실질적 화합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전대 이후 사실상 '한 지붕 두 가족' 양상을 보이면서 갈등과 분열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는 전대 후폭풍이 4월 보선을 기점으로 폭발하면서 야권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5일에도 새정치연합 당권 주자들은 난타전을 이어갔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정책, 비전, 혁신 방안을 말하려고 하는데, 네거티브가 한마디만 나오면 언론이 전부 네거티브로 덮어버린다"고 박지원 후보를 겨냥했다.

박 후보도 불교방송에 나와 "문 후보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어기고 반칙 전대를 만들었다"며 "승리하더라도 반칙으로 승리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인영 후보는 YTN 라디오에 나와 "소

모적 정쟁의 결정판을 보여드리는 것 같다"면서 "국민의 외면과 불신을 당이 자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새정치연합 경남 진주 갑 지역위원장인 정영훈 변호사가 서울남부지법에 '전준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물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정세척에 대한 변경과 해석 권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돼 있는데, 권한이 없는 전준위가 유권해석을 한 것은 위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정 당권주자가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못할 경우, 전대 물 논란이 다시 부상하며 분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보성향 정당 창당을 위해 내주 신당준비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힌

국민모임은 이날 광주에서 야권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대한민국 정치혁명을 광주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힌 국민모임은 광주 토론회를 통해 신당 창당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4월 보궐선거에서 독자 후보를 모두 출마시키겠다고 밝힌 만큼 초반부터 바람몰이에 나서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날 국민모임의 광주토론회에는 전정배 전 법무장관도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전 전 장관의 참여가 국민모임 합류를 위한 사전정치 작업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모임을 포함, 신당 논의가 물밑에서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정치연합이 전대 이후 내부 갈등을 이끈 시기에 봉합하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의 길목에서 원심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 집무실에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朴대통령, 길어지는 '개각 뜬들이기' 왜

이완구 총리인준 이후로 연기 가능성...비박 쇄신압박 부담도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추가 인사가 늦춰지는 분위기다.

5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와 개각 발표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청와대를 향한 쇄신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개각의 폭과 시기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단 청와대 관계자들은 개각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의중에 달린 것이라며 합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내에선 박 대통령이 당심과 민심을 반영해 개각의 틀을 새롭게 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비주류가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을 짊어지는 등 힘의 균형추가 당

으로 급속히 기울어졌고, 대통령 지지율도 국정운영 마지노선인 30% 아래로 내려간 만큼 박 대통령이 기존 구상인 소폭개각으로는 위기국면을 돌파하기 어렵게 됐다는 게 이러한 관측의 배경이다.

이에 이완구 총리인준안이 처리되면 총리의 장관 제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형태로 당심을 반영해 개각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 내에선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통일부, 국토교통부 장관 외에 법무부, 외

교부 등 2~3개 부처가 개각 대상에 더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특히 차기 비서실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황교안 법무장관이 발탁된다면 법무부도 자연스럽게 개각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김병호 언론재단 이사장 등 여의도와 소통할 수 있는 정치인 출신의 중랑급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황 장관의 거취는 아직 유동적이다.

여권 일각에선 이완구 총리 인준안 통과와 개각발표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면,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회동할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출업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고, 한국도로공사 다년재직)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업체 (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 전남대학교 동문 결혼정보업체

초혼	추천 회원	재혼
<p>남</p>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p> <p>편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여</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부 27-36세</p>	<p>남</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면승구 70m 허니랜드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제23기 학생모집

◀ 보전복지부 위탁교육기관 ▶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15년 2월 16일(월) ~ 12월 중순(약 10개월)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주간반 오전 9:00~1:20 / 야간반 오후 6:00~10:20

제출서류

-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 원서접수시 전형료 : 10,000원

원서접수 ~ 2015년 2월 6일(금)

문의할 곳 062)605-1112, 1023

광신대학교

사모상담전문지도자과정 모집

- 지원자격 : 목회자(목사, 강도사, 준목) 사모
- 수업형태 : 2년(4학기) / 15주 / 매주 목요일 11:00~15:50
- 교육일시 : 2015년 3월 5일 개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사진 3x4cm 2매) 1부
- 혜택 : 한 교회에서 두 분 이상 등록하면 수강료 20% 할인

광신대학교

목회자심리상담사과정 모집

- 지원자격 : 목회자(목사, 강도사, 준목)
- 수업형태 : 2년(4학기) / 15주 / 매주 목요일 11:00~15:50
- 교육일시 : 2015년 3월 5일 개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사진 3x4cm 2매) 1부
- 혜택 : 한 교회에서 두 분 이상 등록하면 수강료 20% 할인

문희상 새정치 비대위원장 활동 마무리

“전대 경선 틀 오점 속 무난했다” 자평

8일 열리는 전당대회와 함께 새정치 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도 마무리된다.

이번 비대위는 당의 내분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습하고 세월호 특별법 협의와 새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 등 상생 국회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국회도서관장 외부 개방, 국회의원 세비 동결, 출판기념회 중단 등의 혁신안을 관철해 내기도 했다.

그러나 전대 직전 여론조사 물음 둘러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것은 오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의 '지지후

보 없음' 답변을 놓고 전대준비위가 시행 세칙 작성 과정에서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문제인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대한항공에 처남 취업을 부탁했다는 의혹은 뼈아픈 지점이다.

하지만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전대까지 당을 이끌어 온 점에 대해서는 모두들 인정하는 모습이다.

당내 관계자는 "비대위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무난하게 당을 이끌 어 왔다"며 "정수를 준다면 80점 이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가라온지

임내현, 교통약자 사고 방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광주 북구울)은 5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녹색신호등 시간 늘리기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임 의원은 "2011~2013년까지 발생한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각각 50%와 40%의 사고가 도로 횡단중

발생하고 있으며, 해마다 어린이 30여명과 노인 500여명이 사망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 약자의 안전한 횡단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병호 "KTX 서대전역 경우 원칙없는 정책 끝장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영암 출신 문병호(인천 부평갑)의원은 지난 4일 "호남선 KTX 서대전역 정차는 중앙 정부의 원칙 없는 정책의 끝장판"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 후보는 "대전과 경부 지역이 KTX 개통으로 교통편익과 문화, 산업, 관광 등 지역 경제에 많은 파급효과를 누려온 지난 10년간 호남 550만 시·도민들은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손꼽아 기다려왔다"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온 호남 지역민들을 다시 한번 죽이는 일이며 정부 호남 차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與 계파갈등 잠복 '휴화산'...신경전은 여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선출 이후 비주류 지도부와 친박 주류 측 사이에 형성된 충돌 분위기가 일단 잠복하는 분위기다.

새 지도부의 당 주도 노선과 정책기조 수정 드라이브에 친박 측이 공개적 대응을 자제할 때문이다. 하지만, 근원적 노선 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갈등은 언제든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참석자마다 한 입으로 화해를 강조했지만 기자회견에는 신경전이 치열했다. 전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친박 서정원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는 참석, 신임 원내지도부 당선을 축하했다. 그는 특히 새 지도부에 덕담을 건네면서도 "우리가 새누리당 정권임을 잊어서 안 된다. 어려운 문제는 완급조절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현 비주류 지도부의 거침 없는 가속페달에 우회적 제동을 걸었다.

비주류 지도부도 '당정 공동운명체'를 강조하며 보조를 맞췄지만, 박 대통령의 소통 강화와 청와대의 태도변화를 주문하는 등 시각차가 뚜렷했다.